

지방정부와 로컬푸드

- 〈건강〉,〈환경〉,〈사회〉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 전략 -



전주푸드팀장 나영삼



지방정부와 로컬푸드.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



비트켄슈타인(아내와 시어머니)

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고 해결 하는 방식도 다를 수 밖에 없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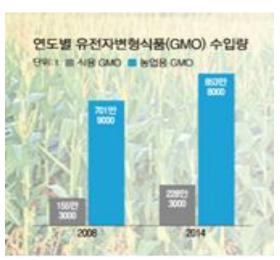
- 1. 세계화 시대, 미래에 대한 지역의 자기결정력을 높여야 한다
- 2. 조직화된 힘 없이는, 결코 '자본'과 '경쟁'을 넘어설 수 없다
- 3. 정책의 결정자도, 수행자도, 열매를 향유하는 자도 지역주민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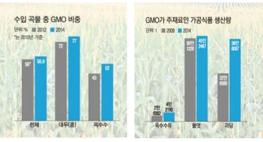


○ 진단1. 한국은 먹거리 위험사회, 탈출전략이 필요하다

한국, 곡물자급률 23%(쌀 제외 시 5%미만)/ OECD최대 식용GMO 수입국







- 한국, 식용GMO최대 수입국: GMO콩, 옥수수, 카놀라유 등 1000만톤 수입(2011-2016.6)
- 불완전한 GMO 표시제 : GMO DNA·단백질 잔류 없을 땐 표기 제외/ 국민 알 권리 침해
- 국가기관(농진청) GMO실용화사업단 : 200품목GM개발, 상용화 선언



진단2. 한국 농업 절체절명의 위기,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

곡창지대 철원평야(철원 오대쌀)에 하우스가 들어서고 있는 까닭은?



풍년기근 일상화/ 갈아엎기

- ▼ 국민경제에서 농업 비중 2%(2015)
- **농가인구 292만4천명(2015)** : 5년 사이 46만명 감소 - 65살 이상 고령자 비율 38.4% 농촌인구감소 지자체 존립 위협
- 농가소득: 농사만으로는 생계 불가능 농업소득 비중 29.1%/ 소득(33%) 줄고 경영비(67%) 늘고 농가소득 양극화 : 상위 20%와 하위 20%간 소득격차 12.4배
- 도농간 소득격차 : 64.4%

쌀 전면개방(2016)

철원군 하우스 면적: '11년(202ha)- '15년(397ha)

쌀농사가 희망이 없으니 하우스로 옮겨가고, 또 하우스가 많아지니 과잉생산 되고, "농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"

한국 농민의 걱정

- ☞ 농사가 예측이 더 불가능해졌다 - 돈 되는 게 없다/ 기후변화 등
- ☞ 생산비는 자꾸 높아진다 - 종자, 비료, 농약, 농기계, 농자재, 사료
- ☞ 농민 몫이 줄어든다. - 유통 몫 커지고, 생산비 보장 안된다
- ☞ 소농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- 규모화 전략에만 집중
- ☞ 노인만 남았다 -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



문석1. 밥상과 농업은 왜 멀어졌나? (국제/ 무역)

국경을 넘나드는 먹거리의 자유로운 이동 : 초국적 자본이 설계, 실행

초국적 자본(기업)

카길 (식량) **몬산토** (종자, 농약) **맥도날드** (패스트푸드)



국제무역질서 설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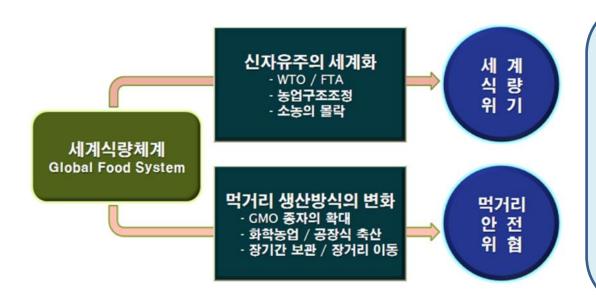
WTO (세계무역기구) FTA (관세장벽 허물기) DDA (다자간 무역협정)



먹거리 자유로운 이동, 완성

GMO, 화학농업, 공장식 축산 대량생산-대량유통-대량소비 패스트푸드(획일화한 음식문화)

● 세계화 : <u>초국적 기업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기획되고 통제되는 지구촌 독점(monopoly)</u>



글로벌푸드의 포로가 된 한국농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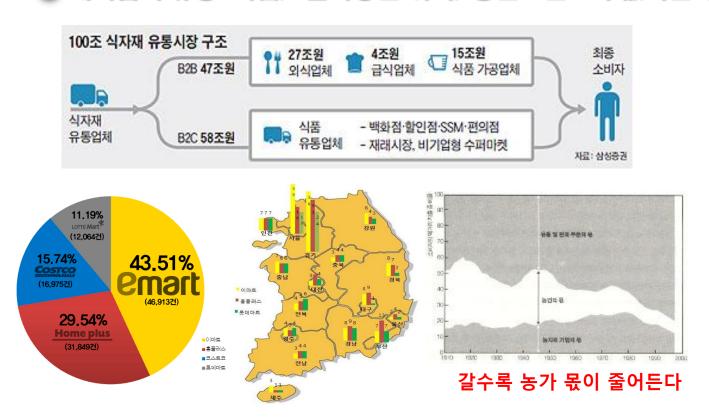
- 52개국 FTA 체결, 농업의 일방적 희생 강요
- 수출주도형 경제구조-경제적 영토 확장(FTA 등)
- 한국 푸드마일리지 : t당 7085km(2010)
- 쌀시장 전면개방(2016)
- 식량주권 위협
 - 곡물자급률 23%, 쌀 제외 시 5% 이내
 - 밀1.1%, 옥수수0.8%, 콩 11%
 - 2030년 관세제로화 시 먹거리의 80% 대외 의존



(국내/ 유통망) 분석2. 밥상과 농업은 왜 멀어졌나? (국내/ 유통망)

유통시장개방, 대형마트가 소매 80% 차지, 부의 지역 외 유출 고착화(심화)

대기업의 유통 독점/ 골목상권 위기/ 농민브랜드가 없어진다(PB상품)





이재윤 기자 / 20110317 @yonhap_grapinics(트위터)

● 대형유통자본 : 전 세계 먹거리 수입의 첨병(경제성, 효율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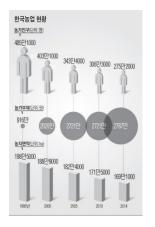


- 다수 가족농의 '농부의 자긍심'을 살릴 것인가?
- 지구를 지켜온 소농 : 땅과 햇빛과 물의 기운을 빌어, 건강하 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급해온 가족소농의 복원(농 업의 다원적 기능 초점/ 2014년은 UN이 지정한 가족농의 해)
- 소수 기업의 자본과 기술에 내맡길 것인가?



구글(미국), 소프트뱅크(일본), SK,LG,CJ(한국) : IT 기 반형 대규모 스마트팜 (토마토, 파프리카, 양상추 등) 만들어 국내외 판매/ 농부의 수직계열화 또는 임금노동자화

농업용 드론, 식물공장, 스마트팜 열풍... 어떻게 볼 것인가?



<대량생산-대량유통-대량소비>의 비지속성에 대한 반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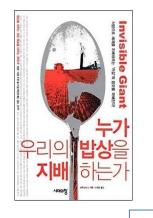
● 대도시 먹거리선진도시(시애틀, 토론토)의 공통점 : 뒤늦은 농부 복원 농부가 사라지도록 방치→ 극소수 기업형 농업만 생존 →시민먹거리 위기 초래 → 뒤늦은 농부재생 프로젝트: **대도시 먹거리정책협의회& 도시농업 프로젝트**

대한민국: "우리에게는 아직도 170만ha의 농지와 275만명의 농부가 남아있습니다"



지방. 치유의 힘, 생산자와 소비자가 맞잡은 손에 있다

전 세계적 대량생산-대량소비구조에서 탈출, 지역생산 지역소비로!



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확보 = 지역농업과 직접 연결

환경파괴 가속화(비료, 농약, 물, 토양) 환경을 살리는 농업 음식과 식품 다양성 파괴, 식품안전 위협 종자, 음식다양성 회복



일본

지산지소 (地産地消) 채소의 30% 이탈리아

슬로 푸드 (Slow Food) 맥도날드 입점 반대 슬로라이프/ 슬로시티 미국

공동체지원농업(CSA) 농민장터 농장에서 학교까지

캐나다

대도시먹거리정책 (food policy council) 벤쿠버, 토론토 등

세계 시민의 자각 사회적 합의 -> 지역 및 국가먹거리체계 혁신



() 사례 (1) 완주군/ 로컬푸드시스템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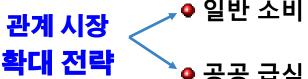
도-농을 잇는 가장 치유력 높은 협동경제 모델, 로컬푸드(한국형 사례 만들자)

- ◉ 완주군은? : 65만 대도시(전주)의 배후도시
 - 인구 8만5천의 도농복합도시(2008)/ 65만 전주시 배후도시
 - 농업인구: 1만가구 (1ha미만 64%), 다품목 소량생산구조
 - 10개 농산촌지역 : 고령화율 46%, 농가 비율 80%



◉ 시민은 안전한 먹거리에, 농민은 안정된 소득에 목마르다

-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위기 해소
- 3000여 가족소농의 소득문제 해결
-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요구(need)에 주목
- 도시와 농촌간의 실질적인 연대와 상생



● 일반 소비 영역(<u>직매장 확대 개설</u>)

공공 급식 영역(<u>공공급식센터 설치</u>)



시계 (1) 완주군/ 로컬푸드시스템 구축

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(2008)/ 농정기획단, 농촌활력과

완주농정 당면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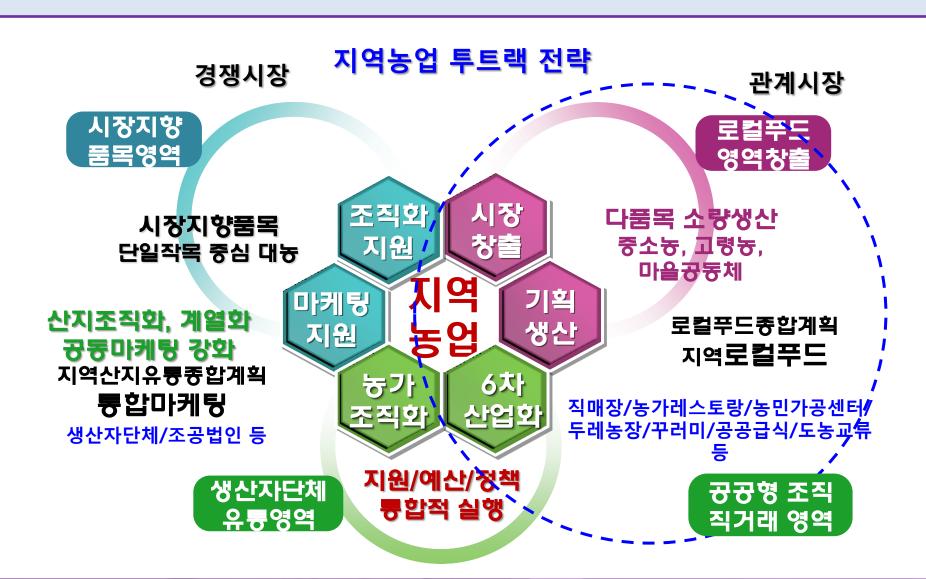
- 소수의 시장지향적 상업농만으로 지역농업은 지속가능한가?
 - 생산과 유통의 간극해소/ 수요에 부응한 기획생산 불가능한가?
 - 가족소농, 고령농의 정책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?
- 농촌마을 및 지역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?
- 5대 정책과제, 12개 농정혁신시책 추진 (2009-2013)
- 시책 추진을 위한 군 예산 증액 편성(연100억,5개년)





() 사례 (1) 완주군/ 로컬푸드시스템 구축

시장 특성에 걸맞게 지역농업 조직화 및 유통전략 차별화 대응





《》 사례 (1) 완주군/ 로컬푸드시스템 구축

지역농업의 일정영역을 다품목 소량생산 가능 체계로 재편

◉ 기획생산 조직화 : 중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, 공동체 중심



농촌노인 두레농장(10개소)

- 생산적 노인복지 정책
- 농촌노인 소득, 건강, 일자리
- 개소당 2억원(군 자체 사업)
- 공동생산시설, 공동식당
- 한우,유정란,신선채소,표고 등
- 138명 고용/ 200백만원 소득
- 역할이 있어 대접받는 노인



마을공동체회사 (105개소)

- 마을 6차산업화 단계적 육성
- 육성단계별 지원(군 자체)
- 파워빌리지(22개소)
- 농어촌공동체회사(2개소)
- 마을기업(3개소)
- 참살기마을(30개소)
- 맛, 멋있는 마을(자원, 경관)



작목반 (120개소 1,500농가)

- 영세 고령농 조직화
- 소규모 하우스 지원: (330m²/100개소)
- 친환경자재 지원: (315백만원/ 750ha)
- 토종종자 발굴육성 등
- 최종 2,000농가 조직화



() 사례 (1) 완주군/ 로컬푸드시스템 구축

거점 공동농민가공센터 설치, 시설이용 및 제조허가 문제 해결

거점농민가공센터(공공시설): 교육, 시설장비, 시제품 개발, 식품제조허가





조직형태	공동체명(조합원 수)	출자금(만원)	제품군	제품수
영농법인	완주 로컬푸드 영농법인 농가의 부엌(20)	1,000	반찬류	55
협동조합	완주군 로컬푸드 가공식품 생산자 협동조합(35)	1,750	습식류 건식류	42
	완주 줌 마뜨레 제과제빵 생산자 협동조합(7)	700	제과제빵	15

'밥상의 절반은 가공식품'

'가공의 부가가치를 농민에게'

가공공장 543m²/ 지자체 소유(공공성) 밑반찬류, 빵류, 천연조미료, 잡곡류 반찬가공실, 건식가공실, 습식가공실

- ⇒ 3개 법인/ 사용수익허가
- ⇒ 3개 공동체 112개 제품 생산 중
- ⇒ 2016년 10억 매출 예상
- ⇒ 꾸러미, 직매장, 스테이션 등



시계 (1) 완주군/ 로컬푸드시스템 구축

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체계와 완주군수 인증제도 도입

● 유통단계별 안전성 관리체계

- 1단계: 직판장 간이잔류농약검사(57개 항목)

- 2단계 :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(1주, 2회, 10품목)

- 3단계: 농산물품관원, 보건환경연구원 연계

- 삼진 아웃제 적용 : 3회 부적합 시 영구퇴출





●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

- 인증 전담부서 신설/ 인증위원회
- 농약성분 246종, 수질검사6종, 토양검증 7종
- 1건당 비용 30만원의 50% 군 지원
- 안전성 : 저농약(무 제초제, 권장 시비량1/2)



《 사례 (1) 완주군/ 로컬푸드시스템 구축

신뢰에 기초한 도농간 관계형 시장이 생겨나다

● 직매장 1일 평균 2000만원/ 총 300억원 매출



- 월급 받는 농부 1,500농가(5개소)
- → 농가당 월평균 150만원 소득(월급)
 - 🍑 마을기업, 두레농장, 주민기업 활력





완주군 로컬푸드 사례의 전국 확산

: 지역단위 먹거리시스템 혁신이 아닌, 직매장설치 붐 한계









시례 [1] 완주군/ 로컬푸드시스템 구축

농민의 자신감과 자긍심이 살아나다

● '역할'이 있어 대접받고, '자존감'을 살리는 생산적 복지

全北日報

2013년 05월 15일 (수) 경제 08면

변화하는 농촌 희망심는다 ® 완주 구이면 두천리 이창염씨

"로컬푸드가 농촌복지죠"

"팽챙을 농사지어도 돈 한 푼 취 어본 일이 없다면 믿으시겠어요? 법 푸드 작매장이 생기고 나서야 농사 진논재비를 알게 됐지요. 있는 세터를 표가 있지... 완주군 구이면 두편리에 사는 이 항영(67) 씨는 평생을 농사꾼으로

그런 이씨가 효자동 토결푸드 직 위 사이에서는 '로컴푸드 편' '로컴

자범적으로 농가에 모델푸드 직 매장에 물건을 내라고 권유하면서 *터다. 처음엔 마음 이장의 권유로 직제

장이 들어서면서 농산물은 내기 시

9917.36m'의 밤에 다양한 작품을 실고 있다. 그가 직매장에 내놓은 상품은 칭

양고추, 파리 고추, 상추, 휘, 도라 지, 머위대, 호박고구마, 잠, 감낭 콩, 구기자, 야콘, 구기자 등이다. 바퀴드를 타드는 일이 영소하지 당았던 초기에는 아주 싼 가격에 내 보면 웃지 못할 기억도 있다.

그가 산에서 채취해 내놓는 유나

호자동 작매장까지는 오토바이 로 20분 정도가 걸리지만, 신선한 논 산물은 고객에게 진단하기 위해 위 해 하루에 두 번씩 들건을 진열했다. 빨린 농산물 대급이 입금되는 분 장을 찍어보는 재미가 마치 '월급을 타는 곳문의 강았다'는이 세.

그의 문적은 농산물에 약을 하지 많는 것이다. 밥에서 나는 풀을 없 매는 맛도 절대로 쓰지 않는다. 이처럼 정성을 들이다 보니 처음 한 단 50단 원 정도하던 수임도 최고 500만 일까지 늘어났다.

여진 상품만 찾는 단골도 생겼다. 현개나무를 취매장에 좀 내달라 이 씨는 "쌀농사는 기계 빌리고, 인건비 빼면 적자 나는 해도 있다"

생 범인턴 동생리 더 범인다"고 말



친환경 재배 농산물, 직대장에 하루 2회 내놔 단골도 생겨 수입 급증…통장 보는 재미 쏠쏠

좋아 보이는 상품도 셀 수 없이 많은 유봉단계를 거쳐 오는 것 "이라미 "유통 단계등 중여 가격도 싸지만 수익이 으르면서 그의 이름이 듣 전화한 재료라는 게 드립푸드의 공 등이나하나 고장도됐다. 왕에나하는 기장도됐다. 왕에나하는 기장도됐다. 왕에나하는 기장도됐다.

손님부터 맛있게 먹는 병법을 전 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저어 로움는손님들도 많아졌다. 가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.

모델이다. 로켙투드 작매 이 씨는 "아무리 노인 일자리 및 고당부했다. 기 정책을 만다고 해도 아르바이트

거리만 자급자폭할 뿐이지 생활비 을 마련할 같이 다당지 않다"며"노 인들이 탄밥이라도 가꾸거나, 채취 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일푸드야말로 복지시

이 때문에 그는 소비자 건강을 우 이 로렌푸드에 물건을 내는 것이다. 고가 생각하는 로칠푸드는 복지 라마"건강한 먹기리를 만날 수 있는 로켙푸드 직매장을 많이 찾아달라"

PUUZZ nane010

난생 처음 신문에 실린 마을주민



완주군 동상면 원사봉마율의 원덕레, 이조왕, 이길레(원쪽부터) 할머니가 매장에 내놓을 상품을 포장하다가 로컬푸드 수입이 찍힌 통장을 들어보이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

"겨우내 통장 찍어본 재미로 살았제"

동상 산골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연으로 끈끈한 우애를 자랑하는 세 할머니가 산다

동상 원사봉마읍에 사는 이길례(80), 원덕례 (77), 이조왕(73)할머니는 '로컬푸드 3총사'로 불 리다. 같은 마음에 사는 세 할머니는 지난해 로 컬푸드 효자점이 문을 연 뒤부터 로컬푸드에 푹

봄비가 내린 4월 23일 이른 아침. 할머니들은 순회차량이 온다는 말에 전날 준비한 각종 물건 등을 실어 보낼 요랑으로 분주했다.

를 비투해 돌나물(29분지) 머위(8분지) 시근치 원다

원 할머니는 "요즘 뜸했거든. 꽃샘추위 탓에 아 을 뜨게 됐다.

동상 원사봉 로컬푸드 삼총사

이길례, 원덕례, 이조왕 할머니 갖가지 산나물, 푸성귀 소포장

"물건팔 생각에 피곤한줄 몰라"

(4봉지), 부지깽이나물(1봉지)을 준비했다. 지난 할머니들은 로컬푸드 효자점이 생기기 전까지 나왔다"며 "로컬푸드가 생긴 뒤부터는 잘 정리 해 꺾어놓은 느릅나무(11개)와 오가피나무(10) 만 해도 로컬푸드가 뭔지 몰랐다. 마을 젊은 아 포장해서 가져가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깐 낙이 직매장에 다녀오고 직매장 팀장(강성욱)이 정말 좋다"고 즐거워했다. 이날은 윈닥례 할머니의 물건이 가장 많았다. 마음에 들려 교육을 하면서부터 로컬푸드에 눈 세 할머니는 동상 산골에 산다. 로컬푸드 효자

매장에 내 사진까지 땀 하니 붙여놧어. 여간 재 있는 게 아니었다"고 말했다.

원덕계 할머니는 "대가(피곤)하 중도 모르고 연락 오면 하던 일 멈추고 물건을 준비했다. 여 기서 나가는 것은 우리 이름을 걸고 약도 안치 고 다 좋은 것이 게 사면는 사람들이 만고 사도 종다"고 덧붙였다.

직매장이 생기기 전에는 물건을 시장이나 공 원덕례 할머니는 산에서 채취한 취나물 1봉지 다. 부지런한 언니들이 나보다 낫다"고 추켜세 판장에 내다 팔았다. 이길레 할머니는 "시장에 갈라는 불편하게 알라에 갖고 가야 차비나 좀

점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보니 혼자 불

난생 처음 자기 통장을 갖게 된 세 할머니

() 사례 (2)전주시/ 대도시 먹거리전략

- 1.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: 65만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권 보장!
 - 시민 행복의 기본은 '건강', **건강**은 **'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'문제부터 접근해야**...
 - 경쟁시장에 맡겨둔 먹거리 부문을 공공정책 영역으로 편입
- 2. 절박한 사회적(지역적) 필요(need)에 귀기울여야!
 - 시민가계 먹거리경제규모 연간 1조/ 지역산 공급비중은 약 500억원(0.5%)에 불과
 - 건강한 시민, 지속가능한 농업, 독립경제도시 전주 실현(먹거리시스템 혁신)
- 3. 도시발전의 핵심 실천과제로 <지속가능한 도시먹거리전략> 부상!
 - 밀라노 엑스포, <**대도시 먹거리 정책협약>**에 100여개 도시 참여, 공동실천 결의

● 전주푸드는

- 1) 지역 푸드시스템의 관점에서
- 2) 건강, 교육, 환경, 삶의 질, 고용, 사회정의, 사회통합 등
- 3) 상이한 정책영역과 정책목표들을
- 4) 먹거리라는 주제로 통합해 나감으로써
- 5) 시민 행복을 증진하고,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하고자 함
- ※ **푸드 시스템**: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유통, 가공,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적 사고로 바라보는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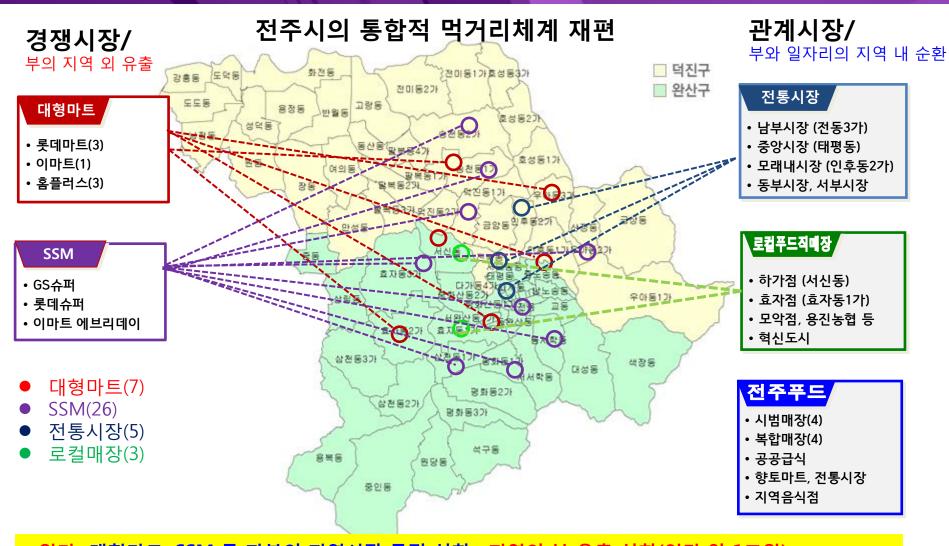
♥ 사례 (2)전주시/ 대도시 먹거리전략

● 슬로건: 건강한 시민, 지속가능한 농업, 독립경제도시 전주

7대 정책 과제	10대 실행과제	비고
1. 시민 먹거리 접근성 개선	① 적정 수의 직매장 및 슬로푸드 레스토랑 개설, 운영	- 생활권 10분 거리 - 매장당 200-300농가 연결
2. 공공부문 먹거리 조달 혁신	② 학교급식 혁신 (지원센터, 현물급식 등) ③ 공공급식 혁신 (어린이, 노인, 복지기관, 관공서 등)	- 지역먹거리 비중 확대 - 현물공급 확대
3.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증진	④ <엄마의 밥상> 등 복지급식 지역 식재료 공급 ⑤ 시민식당 프로젝트(원도심, 공동체 연계) 운영	- 원도심, 지역공동체사업
4. 음식점 전주푸드 공급	⑥ 음식점 전주푸드 공급사업(슬로시티 내실화)	- 슬로시티 내실화
5. 식(食)-농(農)교육 활성화	⑦ 식(食)-농(農)교육 활성화로 음식시민 양성	- 먹거리 문화교육사업단
6.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	8 농업의 6차 산업화 (가공, 음식, 체험, 도농교류 등) 9 협동경제조직 육성 (생산, 가공, 유통, 소비, 교육 등)	- 다양한 지역축제 연계 - 마을 및 주민공동체사업
7. 민관 거버넌스 구축	⑩ 민관 거버넌스 (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, 운영)	- 공익형 재단법인 자리매김

● ①기획생산체계 확립(생산재편)→②거점직매장→③공공급식→④학교급식 순 추진

(사례 (2)전주시/ 대도시 먹거리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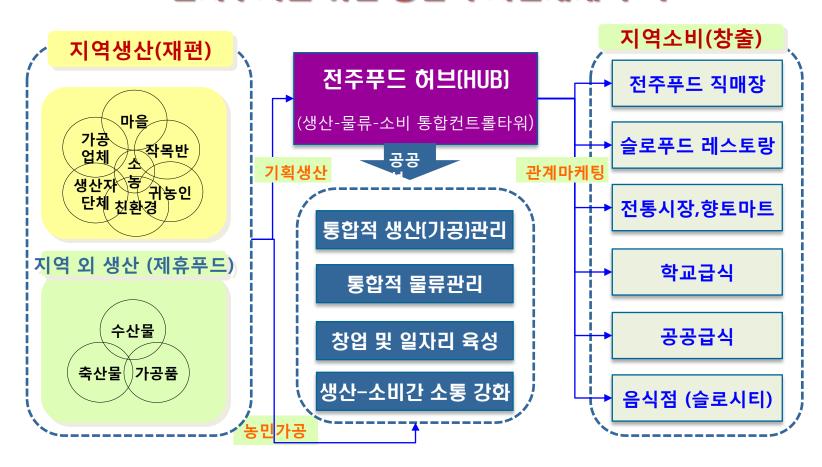


<위기>대형마트, SSM 등 자본의 지역시장 독점 심화 : 지역의 부 유출 심화(연간 약 1조원) <기회>지역자립형 먹거리순환시스템 구축: 자본이 주도하는 경쟁시장(대형마트,SSM)에 맞서 전주푸드플랜으로 관계시장(직매장, 공공급식, 전통시장, 향토마트, 지역음식점) 창출, 확산



() 사례 (2)전주시/ 대도시 먹거리전략

실사구시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



- 행정 내 전담조직: 전주푸드팀/ 정책통합, 지원통합, 제도정비 등
- 민관거버넌스 조직: (재)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/ 시 출연 재단법인 설립(2015. 9), 공공성 담보



♥ 사례 (2)전주시/ 대도시 먹거리전략



한국 최초 대도시먹거리전략, <전주푸드2025플랜>발표/기자회견



"우리는 자랑스런 농민이다" 생산자 다짐대회(500명)



인근 7개 농촌 지자체장들과 제휴푸드 협약 체결

1년의 변화 : 공공정책화, 시민참여 확대, 사회적 합의 진전



참여농가 조직화 교육(1,000명)



농가와 대화(600여개 마을 방문)



경력단절여성 일자리 교육



() 사례 (2)전주시/ 대도시 먹거리전략

가족소농 중심의 지역생산력이 복원되고 있다







- 시장진입이 어려운 가족소농 1천여명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(소득, 일자리, 생산적 복지)
- 단일작목 중심의 규모화방식 탈피, 다품목 소량생산, 연중공급체계로 전환, 지역생산력이 살아나고 있다.













시계 (2) 전주시/ 대도시 먹거리전략

월평균 2만명의 시민이 새로운 먹거리시스템에 연결되고 있다







● 사업모델: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지역먹거리를 나누는 <u>상설판매장(3개소)</u>

● 시 설 : 전주시에서 공공형으로 지원/ 1호(462m²), 2호 (462m²), 3호 (462m²)

● 운영주체 : (재단법인)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

운영방식 : 농가가 매일 아침 소포장 진열, 농가 가격결정, 1주일단위 정산

● 출하농가 : 전주시 중소농 839여 가구

취급품목: 917(농산물 503, 가공품 277, 축산물45, 제휴푸드92)

● 방문객수 : 월평균 3만명

● 운영성과:월 평균 매출액 3억원/판매 금액의 90% 농가 환원



◉ 공공급식분야 공급 본격 추진 : 2016. 10

프로젝트 목표 달성 로드맵: 2016년(5%)-2019년(40%)- 2025년(90%)



시계 (2) 전주시/ 대도시 먹거리전략

프로젝트의 미래계획: 확장, 연결, 전파

- 확장: 학교, 공공기관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로 전주푸드 공급 확대/ 선순환시스템 구축
- 연결:로컬 커뮤니티플랫폼 구축(전주푸드+사회적경제+핸드메이드+지역상품+지역화폐)
- 전파: 전주푸드플랜 사례의 타 도시 전파 및 국가 의제화 촉진



연간 1000만명이 찾는 한국의 대표적 관광도시& 국제슬로시티 &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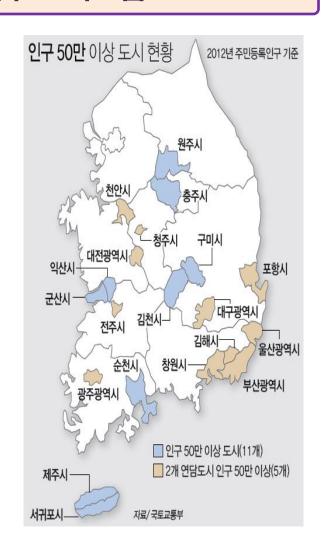


비전1, 광역도시권 – 인근 지자체 먹거리 연결망 구축

지역별 중추도시와 인근 시군을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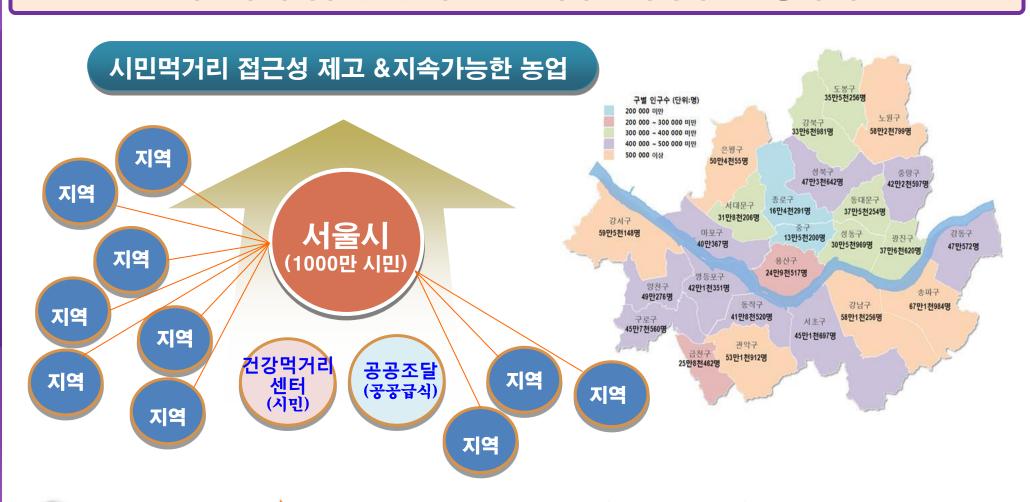
전주시 사례의 타 지역 확산, 인구 50만 이상 지방 중추도시 16개소와 인근 농어촌 연결





(기) 비전2. 수도권(서울, 경기) 자치구와 시군간 연결모델 구축

서울시 자치구 🚧 시군을 연계하는 먹거리 연결망 구축



- 상생논의구조 확보 🥌 시범사업(먹거리센터+공공급식) 📂 사업 확대 뻐 서울시 먹거리시스템 혁신
-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 서울시 선도 🛶 국가 차원의 푸드시스템 혁신 견인



즐론/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천과제

지역단위의 종합대응(정책화), 생산-가공-유통-소비 일원화(시스템)

- 1. 사회적 필요성(need) 주목
- 2. 소농 조직화 전략 ; 슬로건
- 3. 공동체 중심 생산 조직화

새로운 먹거리질서

- 4. 농민가공 촉진, 품목 다각화
- 5. 공공형 운영조직 준비
- 6. 지역농정혁신, 통합적 지원

조직화 및 관계시장 창출

관계시장 창출/ 확산 운영 조직 안전성 확보 기획생산 농민가공

통합적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통합&지원통합: 공공형 추진조직, 예산

통합적 정책수립(목표, 수단, 운영조직, 제도 정비)

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종합전략수립

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.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일입니다.

